

### 조계종 복지재단 '사범연수생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

# 사찰 관심부족... 포교기회 놓쳐

포교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사찰들이 무료 법률상담 등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범연수생들의 요청을 거절하는가 하면,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받아들이는 사찰들이 활동에 필요한 준비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찰 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범연수생들이 불자이거나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적 사회지도급 사람들인 점을 감안하면 인재양성을 강조해온 불교로서는 말뿐인 '인재양성과 포교'를 외치는 셈이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5월 사범연수생으로부터 연수생원 40명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협조를 요청받고 이들이 봉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사찰 섭외에 나섰다. 대부분 사찰들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 사찰의 관계자는 연수생들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아마도 신경써서 싫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이들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일부 사찰들의 속성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런 우려곡절 끝에 1차

(7.3~7.14)와 2차(7.18~7.31) 두 차례에 걸쳐 20명씩 사찰과 복지관에서 실시기로 한 봉사활동은 시작 첫날부터 삐걱댔다. 사범연수생 자원봉사를 받아들이는 6개 사찰 중 조계사와 관문사만 6일 까지 하루 평균 7~10명의 상담자가 있었을 뿐이고, 고양 연덕암은 이틀만에 연수생 2명을 돌려보냈다. 역지로 떠났으나 상담은 고사하고 갈길 일도 없어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다. 또 태고사는 총무원 사회부 한쪽에 자리를 내주고 상담을 하게 했고, 봉원사의 경우는 6일 오전에야 비로소 첫 상담이 이뤄졌다. 또 총지사는 상담자가 없다는 이유로 연수생들을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로 돌려 업무보조를 맡겼다. 심지어 모 사찰은 3일 당일 오전 연수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복지재단 관계자가 진땀을 빼기도 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나 사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관심과 준비부족을 시인했다. 이들은 "개인사가 노출될까 꺼리는 신도들이 상담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



○사찰들의 홍보부족으로 법률상담은 극히 저조했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사범연수생들이 법률상담하는 모습.

았다"며 "그렇지만 고급 인력들이 스스로 찾아와 불교를 배우겠다는 데 이들을 활용할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을 잘못 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일부 태고종 연수생과 사범연수생 법우회 '다르마'의 연수생들은 불교를 배우고 불자들과 친분을 쌓고 싶어 불교를 택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

였다.

복지재단 최중환 부장은 "불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 관·검사들을 대상으로 포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찰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교가 발전하려면 사찰들이 인식의 변화고 인이한 포교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 "탐사 관리인 교체 불교탄압"

### 태고종, 전북도에 항의공문... '철회 마땅'

태고종(총무원장 안곡)은 5일 전라북도가 진안군 미안산 탐사의 관리인을 진안군수로 교체한 데 대해 송박할 수 없다면서 이의 취소를 요구했다. <본지 277호 23면 기사 참조>

태고종은 전북도지사 앞으로 보낸 항의공문과 성명서를 통해 "관할도 배분에 따른 문제점만을 들이 신양의 대상인 탐사의 관리인을 탐사주지로부터 진안군수로 교체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불교문화재의 유지 보호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의 주지스님을 관리자로 위촉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이자 불문"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은 또 "그동안 왕선주지가 천지탑의 관리자로서 탐사리상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진안군수가 탐사의 탐에 대해 스스로 관리자라고 나서서 그 자체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상징하는 불탑에 대한 훼손이며 불교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 규정하고 "전북도와 진안군수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전종도의 뜻을 모아 즉각적으로 취소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어 "종단의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불교 각 수교되지 않을 경우 모든 불교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탐사의 산문폐쇄 등 강경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경숙 기자

## 스리랑카에 직업훈련센터 개관

### 진각종 지원... 여성 청소년에 컴퓨터 교육

진각종(총무원장 성초)은 19일 스리랑카 네곰보 카타나에 위치한 진각복지재단 부설 직업훈련센터 개관식을 현지에서 봉행했다.

스리랑카 직업훈련센터는 진각복지재단이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의 하나로 JCO지부를 설립,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30년간 장기 무상임대를 받아 지난 3월 스리랑카 정부와 공동으로 증축 건설한 것으로 총면적 3천8백여평의 사무실, 강의실, 자동차정비동, 전기용접동 등이 자리잡고 있다. 직업훈련센터는 1차적으로 현지 불우청

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제빵, 한국어 등의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점차 교육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19일 개관식에는 성초 총무원장 등 진각종 간부들이 동참하며, 21 일에는 캔디에 위치한 시암종 소속 불치사에서 비로자나불 봉안불사도 함께 갖는다. 이 불상은 높이 1.2m의 금동 비로자나불로 한국의 전통미를 자랑하는 불상을 기증 받아 영구히 전시하겠다는 불치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경숙 기자

## 뉴스 & 뉴스

###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

한국환경재단간담체진흥회는 실상사와 두레생태기행 주관으로 16~17일 1박2일간 남원 실상사 및 지리산 일대에서 '생태적 시각으로 지리산 돌아보기'란 주제로 제2회 전국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지리산답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02)712-5812 김재경 기자

### 국가보안법 사문화 종교선언

실천불교전승가회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희망하는 각 종교단체 대표들은 4일 오전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사문화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됨을 선언하고 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 영물만일회 여름성지대회

전국영물만일회 여름성지대회가 7월 16일부터 이틀간 전남 보성 대원사에서 열린다.

여름성지대회는 아마타여래 48대인을 동승하는 '저녁 장엄 열불', 아마타삼존불을 영접해 법문을 듣고 수계받는 모습을 표현한 '아미타종' 대동제, 훗불의식, 아마타불 철야집중, 실상정토사 조실 스님을 증명법사로 한 '열불보살 수기식' 등으로 진행된다. (02)732-1215~7 도필선 기자

### 서초경찰서 경승실 개원

서울 서초경찰서 경승실이 오는 20일 오후 1시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유덕 천태종 총무원장, 해덕 서초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조남호 서초구청장, 조상남 서초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하며, 관음보살 봉안 법요식과 개원대법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김두식 기자

### 비세는 제석사 대응전

원효대사 탄생지에 세워진 제석사(주지 적연)가 빗물이 새고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예산마련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다.

제석사의 성인은 "몇년전부터 대응전과 산신각의 지붕 기와가 썩어 빗물이 새고, 석가래의 흙이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보수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미타사 복장성물 봉납법회

지장도량 총복 응성 미타사(주지 명안)는 오는 10월 41m규모의 지장보살 입상 '절안식을 앞두고 9일 복장성물 봉납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해인사 무관스님의 관장으로서 육연존자 사리, 다라니, 금, 은, 철, 오곡 등 70여 가지의 복장물이 지장보살입상에 봉안됐다. 도필선 기자

## 조계종 '봉정암 산림훼손' 조사

조계종 총무원은 봉정암 산림훼손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부와 호법부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6일 현장으로 보냈다. 총무원은 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산림훼손 실태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봉정암측은 "요사채 보수공사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헬기장을 건립하려 한 것이었다"며 "산림을 훼손한 것은 유감이다"고 사과했다. 봉정암은 헬기장을 건립하며 산림을 훼손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인 6일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에 들어갔다.

봉정암의 산림훼손에 대해 불자들은 "사찰이 앞장서서 환경친화

적 불사를 해 환경보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사찰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종단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사찰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종사찰인 봉정암은 헬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에 건조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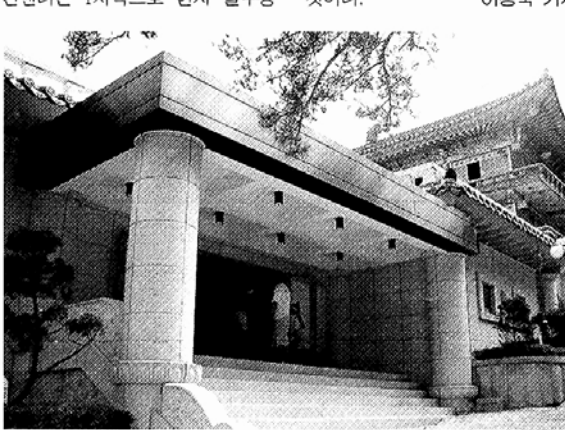
## '불교성전 5천권 서울 시내 호텔 비치'

### 일교전도합 기증

서울시내 호텔을 가만 불교경전을 볼 수 있다. 일본 불교전도협회의 기증으로 신라, 래디슨 프라자, 웨라트워커빌 등 서울시내 20개 호텔에 불경(佛經) 5천권이 비치됐다.

세계의 불교경전연구와 불교학 연구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본 불교전도협회는 최근 서울 동방관광(주)을 통해 신라호텔과 프라자호텔에 각각 500권 등 서울 시내 20개 호텔에 모두 5천권의 <불교성전>을 기증했다. 지난 86년 한국관광공사에 2만권의 경전을 기증한 이래 두 번째 보내 온 것. <불교성전>은 외국인 투숙객을 위해 영어, 일어 번역본 2종이 전달됐다.

서울동방관광의 이근배 이사는 "필소 본사와 친분이 있었던 일본의 겐코지(廣濟)라는 사찰의 가구 료에이 주지스님의 요청으로 일본 불교전도협회의 불경 기증사업을 들게 됐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16일 문을 여는 도선사 시민선방 무차선원 전경.

## 도선사 무차선원 개원

서울 강북지역 최대 기도도량인 도선사(주지 광복) 시민선방 무차선원이 16일 정오 개원한다.

창당스님이 주석했던 곳의 이름을 따 건립된 4백평 규모의 청운당에 자리잡은 무차선원은 1960년대 초 도선사에서 조계종 중흥을 지낸 창당, 성철, 서암, 서운 스님을 비롯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이

용맹정진했던 선종의 전통을 잇는다는 취지에서 문을 여는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월11일부터 참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매일 두차례씩 주지 광복스님이 직접 참선을 지도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 JTS, 인도서 국제자원봉사 캠프

### 아시아·미주지역 청년불자 2백여명 참석

한국 인도 대만 태국 네팔 등의 청년 불자들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인 '제2차 국제 워크 캠프'가 JTS(이사항 법륜) 주관으로 3~12일 9박10일간 인도 보드가야 동계스와리 지역에서 열렸다.

'노동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한다'는 주제로 JTS 이사장 법륜스님과 스리랑카 사르보디아 운동의 창시자인 아리아라테 박사외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 80명을 비롯 아시아, 미주 지역의 청년 불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각 나라의 청년불자들은 JTS가 수타타카메미를 운영하고 있는 동계스와리 인근 지역에서 △우물가 위생시설 확보 및 청소 △집짓기 및 각종 시설 보수 공사 △삼각고나무 심기 △지붕 및 벽 수리 등의 봉사 활동을 펼쳤다.

JTS 이사진 간사는 "이 캠프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청년 불자와 대학생들에게 국제 봉사활동을 통한 노동과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종교 복지연대 9월 창립된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각 종교 복지관계자들이 연대한 '종교사회복지연대(가칭)'가 오는 9월 창립된다.

지현정사(진각종 복지재단 사무국장) 권경임(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 박용철 신부(서울구로동 성당) 정무성 교수(가톨릭대) 등 각 종교 사회복지 관계자 30명은 6월30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발간인 모임을 갖고 9월에 '종교사회복지연대'를 출범 시키기로 하는 한편 권경임씨를 대표로 한 임시 집행부를 구성했다. 한명우 기자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기운을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진년시대 용의 공을 꾸세요.

송곡 소장하여 할 가장 귀중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용자 달마(달마대사)그림, 용자 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용자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회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적,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kornet21.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일주일 만에 精(氣心)神 원리 관동  
진아 꽃 피우는 방편의 꽃  
**우담바라**  
(하나함)

안은 없거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운 넘고  
걸려들지 않으나 함께 못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어는 이뤄도 넘어

부분에서 전체 찾아 相 집착 벗고  
전체와 더불어 담뽕풍당 業習 벗고  
현실경계 자유로이 머뭇없이 마음내는 길

- 믿어라를 깨어라로
- 놓아라를 받아라로
- 의식을 여의주로
- 호흡을 숨(呼吸)으로
- 見을 觀으로 고쳐
- 마음굴을 얼굴로
- 나쁜을 모두나로
- 원수를 元帥로
- 순간을 영원으로
- 공허를 충만으로

특징

- 언어 이전 道와 삶을 합일
- 종교 안팎 모든 방편 옹호
-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일 셋째월 15:00~토 15:00(55만원)  
농협 111-12-36006 윤석태  
(일주일 전 예약 요망 준비 필요)

**세라믹 납골용기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납골당 운영 준비하시는 슨님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태림 세라믹"에서는 큰스님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년간 노력끝에 납골용기함을 뛰어난 기능과 디자인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사용하고 있는 제품) 나무·도자기·옥·대리석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수공법으로 견고성과 습기에 강하여 변질이 없이 영구 보존할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납골당을 준비하시는 사찰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제품문의는 본사에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특히 사찰에 따라 특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태림 세라믹 임직원 일동**  
서울 연락사무실 02)877-4353  
본사 031)943-3606  
016)541-3606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 4리 438-2호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대경, 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명 언행) 사미유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시달림법(말씀 위계 작성 독경 열불) 만혼1제~6제 천도 발인 화장 예절  
· 49제(시령 대령 관육 지장정 시식 불송 소대)  
· 법당 불상 태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식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좌선법(간화선 목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공정 관음지장산중 산신 절성 독경 발원)  
· 목탁 요령 죽비 징종 사용법 신중작법 구별시식 관음시식 상요령만  
· 화엄시식 종사 영반 정안식 삼재놀이 화현식 원에 따라 수계식 봉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주요교단 발취 강의 납골 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시달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매월 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병영행판 사진 3매  
◇사망정토독리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정토)의 지도원 편의 제공  
◇초상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비: 백만원(기부(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인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